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2년도 표어 ◎

성령이여 교통케 하소서 (고후13:13)

◎ 행동지침 ◎

- 1. 내실있는 교회 되어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생활을 실천한다.
- 2. 성숙한 교회 되어 이웃과 세계교회를 섬기며 화평과 연합을 도모한다.
- 3. 책임있는 교회 되어 지역사회와 민족 앞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한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2002 성경통독 사경회

-2월11일(월)~12(화) 양일간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우리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1년에 최소한 성경을 1번 통독하기를 위하여 매년 초 구경연휴기간동안을 '성경통독 사경회' 기간으로 정하여 지키고 있다.

올해도 구경기간중인 2월11일과 12일 양일간을 성경통독사경회 기간으로 지키게 되었다. 우리는 평소에 성경말씀을 읽기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갖가지 이유로 중도에서 그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우리교회는 모두가 함께 합심하여 한자리에서 성경을 통독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 기간은 구경으로 전국민이 고향을 찾아가 전래의 미풍양속을 찾는다는 명목 하의 조상숭배와 음주도박 등으로 심계명을 범하여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더욱 멀어지는 기간이 된다.

이러한 기간 중에 우리교회가 갖는 이 행사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해드리고 아름다운 자리가 될 것이며 예배당을 울리는 우리의 목소리는 기뻐 흠향하시는 산 제물이 될 것이다.

올해의 성경통독 사경회는 '개혁개정관 신약전서를 범위로 2월 11일 오전 8시에 웨스트민스터 홀(101호)에서 경건회를 시작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앞장서서 읽어갈 강사로는 이종윤 목사를 비롯한 부교역자와 두분 전도사가 선정되었다. 참가비는 10,000원이며 점심식사가 제공될 예정이다. 참가접수는 사무국에서 받는다.

교구별 주소록 제작

우리교회 등록교인을 교구별로 정리한 교구별 주소록이 제작되었다. 이번 제작된 교구별 주소록은 지난 1996년 교회요람 제작을 하고 난 후 6년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최신 교적자료로 다시 구성이 되었다. 교구별 주소록은 1교구를 제외하고 각 교구가 둘로 묶여 총 7권으로 제작되어 성명과 주소 전화 등이 기재되었고 수첩정도의 크기이다. 교구별 주소록이 필요한 성도는 교구 간사나 교구지도 교역자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 지난 1월 14일 우리교회에서 있었던 강능노회연합수련회



새롭게 도약하는 남선교회 여전도회

전도위원회 (위원장: 왕경래장로)는 지난 1월17일202호실에서 남선교회·여전도회 회장단 연석회의를 갖고 2002년도 사업에 대한 토의와 기도를 통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날 경건회에 이어 회장단 소개가 있는 후 남선교회 간사로 이동만 집사를, 여전도회 간사는 한정아 집사를 임명, 발표했다.

대학부 임원·조장·교사 수련회

1월25일~26일 미스바홀(102호)

2002년도 대학부를 이끌 임원과 조장 그리고 교사가 함께 모이는 수련회가 오는 25일과 26일 이틀간 교회 1층 미스바 홀에서 열린다. 대학부는 김운호 목사의 지도 하에 2002년을 새로운 발전의 해로 정하고 뜨겁게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먼저 임원과 조장 교사가 거듭나는 기회로 삼고 있다. 교회는 대학부 젊은이들이 주안에서 승리하도록 함께 기도한다.

금주의 말씀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개혁개정관 마 28:18-20)

Then Jesus came to them and said,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has been given to me.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And surely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 (NIV Mt 28:18-20)



▲ 지난 1월 6일에 거행된 2002 순결서약식



태신자 명단

박중선 송준섭 전태성 강영철 이명성 이복근 김풍철 이창암 이석계 이윤재 이혜정 한중봉 박형웅 (다음주에 계속)

비전2020후원자 명단

이찬호(10구좌) 김현주(2구좌) 김복녀(2구좌) 이덕빈(1구좌) 방계운(3구좌) 이민화(1구좌) 김병숙(1구좌) 최금례(3구좌) 배영애(1구좌) 황선희(2구좌) 백우기(10구좌) 김요한(10구좌) 한금희(2구좌) 이옥녀(4구좌) 이병생(10구좌) 이옥현(3구좌) 김영주(3구좌) 노송성(3구좌) 이경구(3구좌) 문옥임(4구좌) 정병무(3구좌) 이점숙(1구좌) 이순녀(3구좌) 전춘자(1구좌) 유영준(1구좌) 임송자(1구좌) 김수현(1구좌) 박정섭(1구좌) 김순녀(5구좌) 오광환(3구좌) 이훈(10구좌) (다음주에 계속)

농어촌 100교회후원 (1월20일 현재)

113 지하철 선교회 정동학·김복순
114 평화의 집교회 광종철·한현숙

이사야 강해

구원의 보장

(이사야 55장 6 - 13절)

하나님의 말씀도 약속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자기 습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보다 더 좋아하기 때문이요 또 세상이 너무 거짓 되기 때문에 남을 믿지 못하고 약속이 클수록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마4:4)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만든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책입니다.



이종운 목사

사람들은 21세기를 불확실성의 세대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확실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인간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실은 확실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1.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확실하므로 그에게 돌아오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6절).

'찾으라', '부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만날만한 때에, 공간적으로 가까이 계실 때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포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여호와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7절).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용서합니다. 회개는 여호와께 돌아오는 조건이요 그 자체입니다. 악한 길에 머물면서는 여호와께 돌아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돌아온 자는 하나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2. 확실한 사죄의 근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8절).

인간에게는 복수심이 있으나 하나님의 용서는 철저합니다.

①인생은 남의 잘못을 마음에 두고 용서하지 못하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으셨다면 살아남을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②"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 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마 18:21-22). 인생은 여러 번 거듭 용서하지 못하지

만 하나님은 여러 번이라도 용서하십니다. 끝없이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③인생은 큰 죄를 용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큰 죄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훼방하는 죄, 곧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방해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④인생이 생각지도 못한 수난의 종으로 속죄케 하심은 창조 사역보다 큰 일이며 놀라운 일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9절).

하나님의 사죄는 위대하십니다.

①"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시 103:12).

우리는 죄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로부터 멀리 옮기셨고 그러므로 죄가 우리에게서 떠나갔습니다.

②"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사 38:17).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죄를 등 뒤에 숨기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들어 자기 앞에 놓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며 죄를 우리 앞에 놓으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자기 등뒤로 던지실 것입니다.

③"내가 네 허물을 뺨뺨한 구름 같이, 네 죄를 안개 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사 44:22).

아침 햇살로 안개가 사라짐같이 우리의 죄를 그렇게 없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와 같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④"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미 7:19).

바닷물 속에 열쇠를 빠뜨리면 찾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십니다.

⑤"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렘 31:34).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용서하신 죄를 다시는 생각지 말고 과거의 죄로 인하여 자책하지 말아야 합니다.

⑥"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 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사 1:18).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우리의 주홍 같고 진홍같은 죄가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해졌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이 보장됩니다.

3.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썩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10절).

위의 말씀은 현대 과학과는 대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은 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비와 눈으로 내려오며 쉬지 않고 중력의 원리를 따라 흐릅니다. 이 같은 물의 순환에서 지구상의 모든 동물과 식물, 그리고 생명체는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만물에게 비와 눈을 주시는데 그 은혜는 내려온 후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11절).

하나님의 말씀도 약속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자기 습관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더 좋아하기 때문이요 또 세상이 너무 거짓 되기 때문에 남을 믿지 못하고 약속이 클수록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마4:4)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만든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책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이 확실히 보장되었기 때문에 늘 기쁨으로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기쁨으로 귀환할 것입니다. 출애굽 시에는 바로의 추격을 두려워하며 급하게 나왔으나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기쁘게 노래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종말에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에 모일 때도 구원받은 것을 기쁨으로 노래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뻐할 때는 자연 만물도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탄식하며 고대하던 만물이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면 기뻐하며 맞을 것입니다. 그 때 만유는 새롭게 되고 회복됩니다.

이렇게 회복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예뻐 동산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며 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영원한 표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며 저희를 구원하신 영원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1월4일 오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신혼가정부 겨울수련회를 갈 건지 묻는 전화였다. 10개월 이상 병상생활을 한 우리 딸 하은이 때문에 못 간다고 했다. 하은이는 너무나도 잦은 구토 때문에 밖에 나가 우유를 먹인다는 것은 상상조차하기 힘든 일이고 복막투석대신에 칼륨을 낮추는 관장을 하고 사는 터라 마음이 내키질 않았다.

하지만 사실 그 보다 상처받은 내 마음 때문이었는지 모른다. 어쨌든 하은이의 첫 여행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문득 이규정 목사님께서 오셔서 7월 여름 수련회를 가자고 하시며 그때까지 복막투석을 하지 않고도 살아 있어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제목을 정해놓고 기도하자는 목사님 말씀에 열심히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났다. 그땐 하은이가 투석을 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꿈만 같은 일이었다. 하지만 하은이는 복막염으로 계속 고통을 받아야했고 반복되는 투석삽관수술에 나는 점점 지쳐갔다. 투석이 안되고 말뼀을 피울 때마다 혹시 자생력이 생겨서 콩팥기능이 되돌아오지 않을까... 혹시 이번에, 혹시 이번에 하지만 나의 기대는 어김없이 무너지고 하은이는 고통 속에 하루종일 울기만 했다.

점점 희망을 잃고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9월말 너무 복막이 현 탓에 더 이상 수술이 어려운 상태가 되어 카테타 삽관수술도 못할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고 의사도 하은이가 버티주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말만 하였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신 건지 정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건지 .. 과연 주님의 응답의 때가 이

심혈가정부 수련회를 다녀와서

추하니 성도 (2교구)

때인지...그 어려워 보였던 하은이의 칼륨수치(생명과 직결되는 수치)는 정상수치를 유지하였고 소변 양이 적어 부어있던 하은이가 소변 양이 늘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다.

몇 때는 것조차 잊어버려 피를 쏟아내며 꽃아야했던 8개월 동안의 콧 풀을 빼고 입으로 먹게되었다. 처음엔 한번에 3시간 동안 먹이며 하은이와 나는 눈물을 흘렸지만 점점 좋아졌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렇게 해서 퇴원해 집에 있으면서 난 그 감사를 어느덧 잊고 다시 투정을 하고 있을 때 남편이 나에게 수련회소식을 전한 것이다.

그땐 수련회를 가게 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나는 마음을 바꿔 결심을 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수련회를 가야겠다고. 부랴부랴 짐을 싸들고 하은이를 데리고 출발. 밤 9시30분에 도착해 짐을 풀었지만 그때 까지도 나의 마음은 부담스러웠다. 다섯 가정이 참가했지만 모두들 하은이 또래의 아이들이었고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자리에 동참해 이야기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참 이상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하은이가 창피하고 속상하다는 생각보다 오히려 더 예뻐 보였고 정말로 저 아이들처럼 걷고 웃고 말할 수 있게 될 거라는 알 수 없는 희망이 생겼다.

이 자리까지 인도해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 때문이었을까 이 수련회가 하은이가 부딪치는 첫번 세상이지만 나는 하은이가 세상을 이길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그 동안 그렇게 열심히 매달리며 기도해왔던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이 실족하고 주님을 원망해왔던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 그 동안 깨어져있던 우리가정과 수없이 죄송우물했던 나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절교 말씀 중 야고보서 4장 8절이 강하게 나에게 다가왔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는 그간 수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 멀리했다 하면서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방문했지만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 가까이 계셨다.

그리고 지난해를 돌아보며 신년계획을 짜는 가정 가정을 보며 그들이 성령 안에서 얼마나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을 느꼈으며 많은 도전을 받았다. 어디 이 가정뿐이겠는가. 수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그러할 것이다.

이 수련회를 통하여 나와 내 남편에게 큰 믿음의 활력이 되게 해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청지기수련회를 참석하고 성령이여! 고통케 이소서!

교회학교 교사
전용순 권사(9교구)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인 제가 유아부 부감으로 직분을 받게 되어 두려움과 걱정이 앞섭니다. 세 일꾼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려고 청지기 수련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매년 받는 교육이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 문을 들어서서 순간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종운 목사님의 특강을 마치고 정운돈 목사님의 강의로 '바른 교사와 바른 교육'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아부 교사로 일하면서 한 일이 무엇인가 되돌아보는 가운데 너무나도 부끄러워 주님 앞에 머리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강의 중 정운돈 목사님은 바른 교사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질 줄 아는 교사, 비전과 열정과 은사가 있는 교사, 학생보다 먼저 와서 준비하는 교사, 먼저 찾아가는 교사, 불평하지 않는 교사, 생명을 살리는 교사라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이런 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한 영혼과의 소중한 만남을 귀하게 여기며 참 교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의 보조교사로 일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봅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유아부를 향한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찬양대원
박정섭 집사(1교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에베소서 5:19)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어떻게 드려야 할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 하나님 열납하시는 찬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청지기 수련회를 통하여 배운 몇 가지를 정리하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다.

첫째, 바른 자세로 충분히 연습하여 가사를 외우고 지휘자를 꼭 보자.

둘째, 마음의 평안함과 은혜로운 얼굴로 부를 수 있도록 기도하자.

셋째, 최고의 찬양을 준비하고 사모하며, 시간 전에 와서 준비하자.

넷째, 지휘자, 반주자, 선택된 곡, 대원, 듣는 성도님들 함께 은혜 받기를 위한 기도를 하자.

다섯째, 좋은 음악은 지휘자의 손끝에서 나온다는데, 집중하며 온 정성을 다 하자.

오랫동안 섬겼던 찬양대이지만 올해는 각오를 새롭게 하고 새노래로 찬양대를 섬길 것을 다짐해 본다.



▲순례자와 함께한 Mr. Jesse Pangelinan, Mrs.현순 Pangelinan, 권순호성도

새로 왔어요

예수를 처음 믿어요

Jesse Pangelinan(38세), 현순 Pangelinan(32세)
권순호(30세)

-외국인이 열심히 매주 예배에 참석하니 파 international church에 온 것 같군요. 부부신가요?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부부예요. 남편은 꿈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공부했습니다. 원래 천주교 신자인데 이영기 장로님 소개로 서울 교회에 오게 됐어요. 한국말을 잘 몰라 2부 영어 동시통역 예배를 드린 후 남동생과 함께 세 명이 영어성경반에 가서 성경공부를 하죠. 저는 예수를 처음 믿어요.

-Pangelinan 성도님, 서울교회에서 느낀 점이나 한국생활에 대해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교회가 커서 좀 산만한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다들 친절하고 8층에서 먹는 교회 점심이 맛있고 분위기도 좋아요. 한국사람들처럼 저도 매운 음식을 좋아하고 무엇이든 잘 먹어요.(김치를 보며) 꿈에서는 밥에서 홍고추를 따서 바로 김치 담드는데 한국에서는 마른 고추로 김치를 담고더군요.(한국에서도 금방 먹는 김치는 마르지 않은 홍고추를 그대로 쓰기도 해요.)

-순호 씨는 자형에게서 영어를 배웠나요?

화학과를 졸업했는데 틈틈이 혼자서 영어공부를 했답니다.

-현순 성도님은 배가 꽤 부르네요. 곧 산발이신가봐요. 임신 9개월이어요. 아빠 닮은 애 한 명만 낳으려고 해요.

-남편께서 매우 자상하시네요. 밥도 갖다주고 그릇도 치워주고 커피도 갖다주고....

자상한 건 그 나라 문화이지 그렇게 뛰어나게 자상한 건 아니예요. 하지만 뭐든지 갖다바쳐야 하는 게 친구의 남편(한국인)을 보면 자상하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관음의 귀한 열매였던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1998년 5월에 시작된 우리교회의 어린이 수요일예배는 그간 참석하는 어린이가 많지 않아 부진을 면치 못했는데 끊임없는 교사들의 헌신과 전도로 최근 참여하는 어린이가 증가하여 지난 수요일에는 36명이 출석하였다.

현재 어린이 수요일예배는 지도교역자로 이영희 전도사, 박두영 집사와 한정아 집사가 각각 부장과 부감, 그리고 교사 4명이 수고하는데 출석 어린이에 비해 교사가 부족한 형편이어서 교사로 헌신할 분들을 기다리고 있다. 부장 박두영 집사는 특히 대치지역의 성도들이 주변에 서울교회의 어린이 수요일예배를 알리고 다락방마다 해당어린이들이 어린이 수요일예배에 참여할 것을 권면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지금 유치원에 다니는 6살 난 준호 어머니는 아이가 너무나 컴퓨터 게임을 좋아해 걱정이 많다. 요즘 '철권'이라는 게임에 빠져있는 준호는 얼마 전 게임이 잘 안 되자 키보드를 내던져서 부서지는 바람에 엄마도 깜짝 놀라고 준호 자신도

깜짝 놀랐다고 한다. 그렇다고 준호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준호의 모습은 요즘 도시에서 사는 아이들의 모습일 뿐이다. 준호는 물론 엄마를 따라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준호 엄마는 주일만 교회에 오는 주일신자이다. 요즘 준호 어머니는 서울 교회에 어린이 수요일예배가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아이와 함께 자신도 수요일예배에 출석하려고 한다. 준호를 좀더 말씀과 믿음 안에서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지도교역자 이영희 전도사는 1부 예배 때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말씀이 바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갈 것이며 구태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지 않겠느냐고 한다. 아이들은 부모가 생각하는 대로 자라주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아이들을 맡겨야 할 것이다.

어린이 수요일예배는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101호에서 예배를 드리며 대상은 유치부부터 초등부 6학년까지다.

허 숙 (편집부)



▶ 아이 사무원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받더라 (사무원상 2:26)
- 어려서 부터 예수님을 알게 하는 교육, 그것이 모든 신앙교육의 근본이다.

† 초등부 †

초등부는 찬양단, 영상반, 어린이 학생회 등을 올해부터 새롭게 운영한다.

1. 찬양단

찬양단은 주일 아침에 초등부 예배 시에 찬양을 인도하고 두 달에 한 번 하는 찬양 집회를 인도하는 일을 한다. 이 찬양단은 찬양대와는 다른 것으로 초등부 어린이들과 함께 율동과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한다. 연습은 초등부 찬양대 연습 후인 매주일 12시~1시에 할 예정이다. 지원은 이번 주일까지 지원서를 작성해서 내면 되고 이번 주일 12시에 심사를 거친 후 다음 주일인 1/27일에 합격자를 발표한다. 담당은 김민정 선생님이다.

2. 영상반

영상반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배우고 매 행사 때마다 비디오와 사진을 통해 행사를 기록하고 발표하며 또 두 달에 한번 정도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하는 말씀공부를 맡아서 하게된다. 컴퓨터, 인터넷, 비디오, 사진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담당은 조종화 선생님이다.

3. 초등부 어린이회장 후보 공모

초등부 어린이회는 올해에 많은 일을 감당할 예정이다. 어린이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예배부장, 찬양부장, 봉사부장, 친교부장, 문화부장으로 구성되는데 1월 27일에는 어린이 회장을 선거가 있고 구성된 회장단을 중심으로 어린이회가 조직될 예정이다. 1월 27일 전까지 초등부 6학년 학생은 각반 담임 선생님께 후보 출마 의사를 밝히면 회장 후보가 될 수 있다.

초등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22일(화) 군선교연합회 이사회, 24일(목) 총회 주체위원회에 각각 참여한다.
- 이현선 집사(1교구) 식당·비전홀 식탁보일체 기증
- 왕지윤 성도(11교구) (주)논펜선물 MELANI.B 기업 6366-4605

☎ 금주의 식사제공: 나옥녀 권사 가정 (연혜 중에 장례를 마치고)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XX 1188KHz) 생명이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순결서약식에 참석하며

백경원(청년부)

"순결서약식"이란 걸 알게 된 것은 6년 전 누나가 반지를 끼고 있을 때부터입니다.

하지만 저에겐 가깝게 다가오지 않았기에 그냥 무심코 지나가 버렸던 것이 생각납니다. 작년에 이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친구들이 끼고 다니는 반지를 보게 되었고 마음속에 있던 '혼전순결의 결심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부모님과 여러 성도님 앞에서 굳건히 다시 세워야 겠다'는 결심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혼전순결이라는 교육을 받으면서 혼전관계는 죄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나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서 죄를 범 하느니라"(고린도전서 6장 18절)

결혼의 테두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 관계를 음행이라 하는데 그것이 죄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혼전관계로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

게 되었습니다. 짧은 순간의 스릴과 약간의 일시적인 쾌감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평생의 죄의식과, 서로에 대한 실망을 안겨 줄 수도 있으며, 약혼과 결혼 그리고 성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참사랑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 심판하시리라"(히브리서 13장 4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대는 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성에관한 말씀을 주신 것은 성을 금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충분하고 오랫동안 성을 기쁘게 여길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제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이라는 서약서에 따라 육체와 마음의 순결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002년도 성경학교·겨울수권회를 위하여
2. 새로 임명된 2002년도 일꾼들을 위하여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국가의 안정과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일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

